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002호 현대불교 29  
2014년 7월 24일 (음 6월 28일) 목요일 / 불기 2558년

# 천만 번나를 죽인다 한들 내 마음이야 죽일 수 있겠는가!

### 주인공과 계합하기 위한 실천행은

**문**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 주인공에 계합이 되려면 어떤 실천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 우리가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는 열심히, 어떠한 것도 보지 말고 어떠한 분별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분별을 하면은 통달을 못한다.” 하셨습니다. 별레 속에 들어가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없어야 하고, 또 돼지 속에 들어가도 어리석다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삼독이나 역시 일체 번뇌 망상, 이 속에서도 걸림이 없고 분별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죽인다 하더라도 분별이 나오지 않고, 부처님 한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쾌활하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사로운 그날 이론으로는 알지만 진실히 행동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리 껴어 맞추고 저리 껴어 맞추어도 다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따르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거를 삼아서 행동으로써 실천공행하는 데 목적을 뒤야 하는 거라 이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안으로 천지를 다 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우주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다섯 가지 오신통, 다 보고 듣고, 가고 움직이지 않고, 남의 속을 알고, 남이 어디서 온 것을 알고, 이것을 타심통이니 속명통이니 또 천이통이니 신족통이니 천안통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를 다 알면서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물이 여기 분명코 있는 것을 아시고 봤습니다. 전에 그렇게 말했듯이, 이것을 내가 목마를 때에 아무 끄달림이 없이 마실 수 있고 줄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실천공행입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보기만 해도 도가 아니니라. 구름을 타고 오고 가고 빛보다 더 빨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심안으로 전체를 다 봐도 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어디서 온 것을 알고 남의 속을 뻔히 알고 이래도 도가 아니니라 했습니다. 왜 도가 아니라고 했는가.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걸 보고도 말대로 못하고 보고만 있으면은 소용이 없거든

요. 갖다 먹을 줄 모르는데 어떻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가 아니지. 줄 줄 모르는데 어떻게 도가 됩니까. 가고 온다 하더라도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자재하게 행할 줄 알아야 아득다라삼막삼보리의 그 법을 무심법행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지를 봤다고 해서 그게 다라고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그 오신통을 다 들어서, 마음으로 부터 누진을 통해서 다 들 수 있다면, 바로 오신통에서도 벗어나야 그걸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들었다면 굴릴 수 있어야 하고 굴릴 수 있다면 바로 실천공행이 되는 겁니다. 또 그것을 굴린다고 해서 안이하게 있는 것이 아니

라. 열반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중간도 아닌 것을 열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모두 아니 된 게 없고 나 자신이 없고 내 자리 아님 없고 평발 하나 로써 모두 디렸느니라 하는 것을 표현해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했고, 모두 여러분을 내가 현재 이렇게 나와서, 거기 여러 모로 말은 붙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 세상을 다, 여러분을 다 건졌느니라 하는 뜻에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던 거고, 나오셔서 휘휘 둘러본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정됨이 없고 공 했어요. 그러니 부처님 자리가 틀어 아니고

중생과 부처가 항상 같이 있느니라. 평등하니라 하고 둘러보신 겁니다. 일곱 발자국을 디딘 것은 그 평등한 실천공행이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다 빼놓고 뭐가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진화돼서 인간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은 좋고 나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평등한 진리도 알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99%가 부처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진리는 있었지만, 우리가 먹어 보지 않고 해 보지 않고 보지 못한 것은 생각도 안 나듯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서서 참 우리의 스승으로서 여러분한테 설하신 그 뜻이 헛되지 않게, 여러분이 뜻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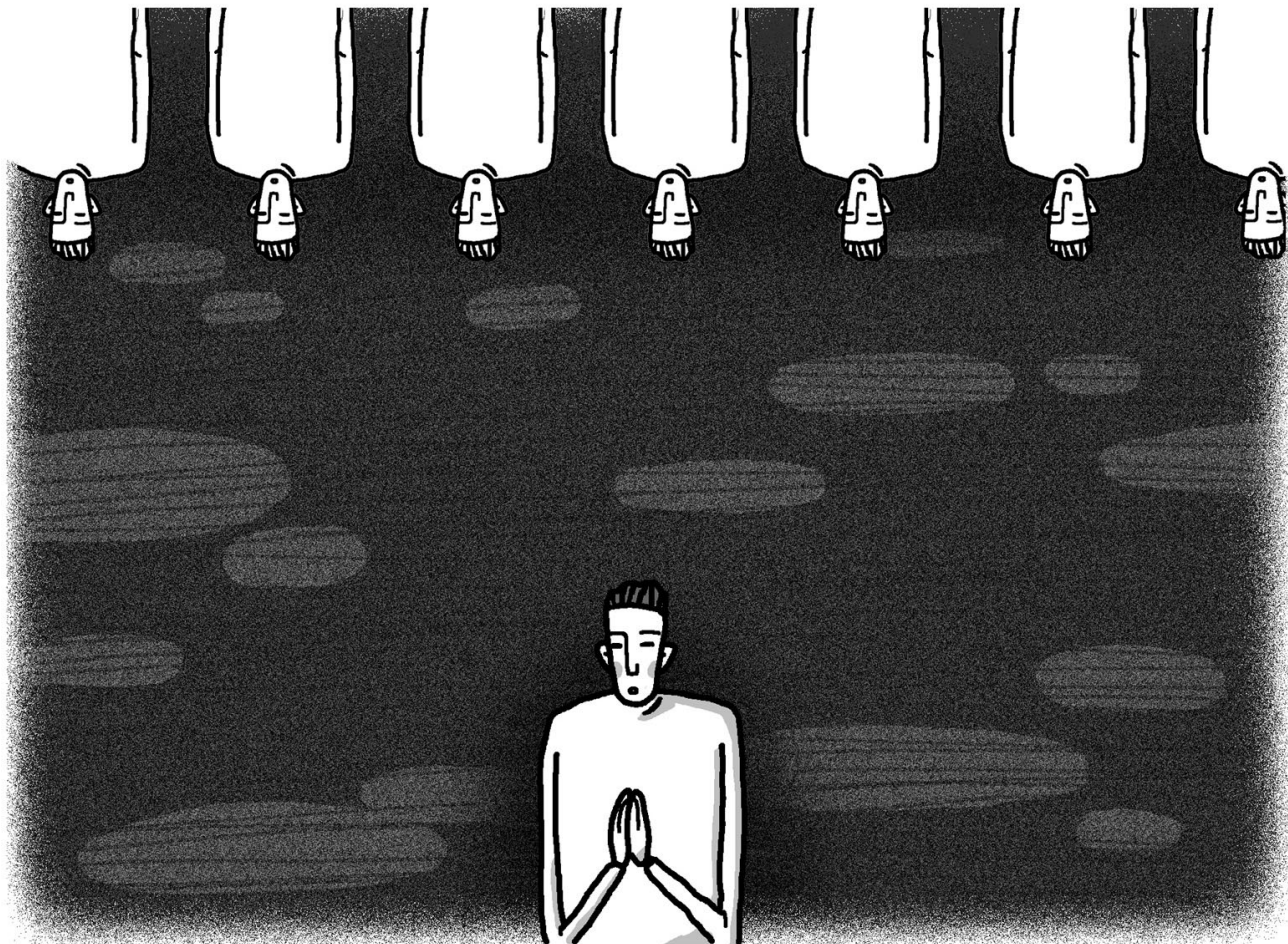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바로 불제자의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분별을 하고 별레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별레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마음으로 분별하지 말고 침착하게 놓고, 모르는 사람을 본다면 내가 과거에 모르는 그 모습으로 보시고 아는 사람을 본다면, 아주 차원이 높은 사람을 본다면 바로 배우기도 하고 바로 내 마음속에, 주인공 안에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바로 알 것이다 하는 생각, 그 주인공에 놓는 감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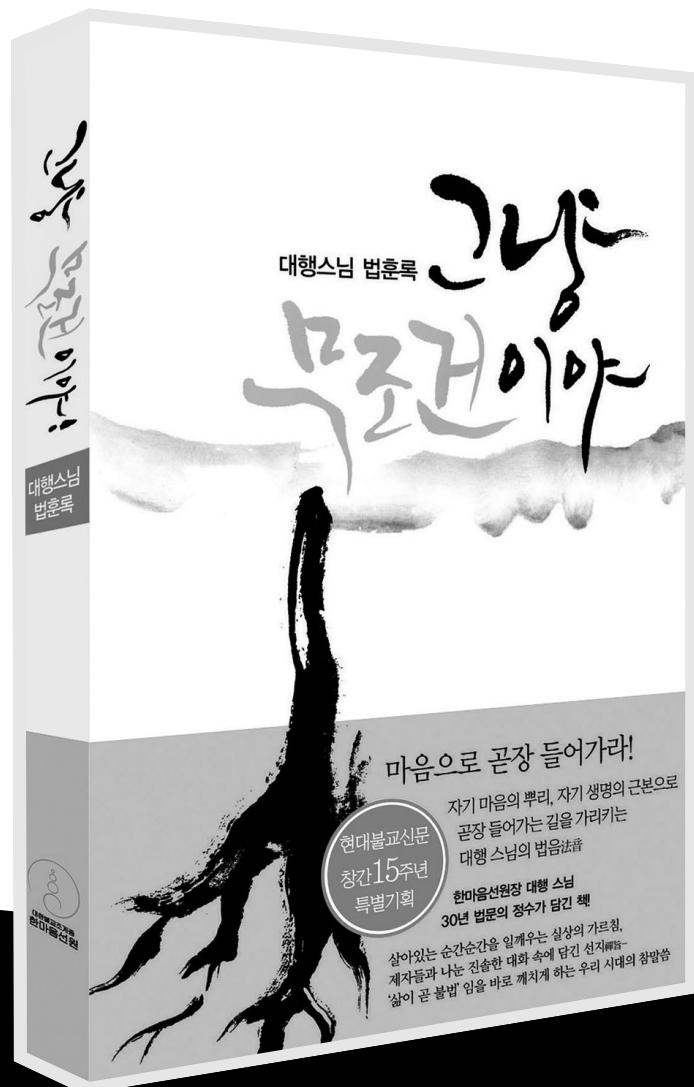
“높은 거를 봐도 높게 보지 말고” 하는 것은, 저 부처님도 내 형상이요 부처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 생명도 내 생명이니 항상 위로는 모시고 있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리드해 나가니까, 여러분이 살림살이하는 데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 자식을 기르는 거와 같습니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뜻이.

그러니 모든 분별을 놓아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그 상대의 행동을 보고서 생각하는 거는 누구든지 각자 자기 소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남편이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 저이가 뭘 하고 들어왔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 같아.’ 이런 것이 바로 자기 소견이지 남편의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깐 남의 소견을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별은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깐 뒤집어쓰기도 하고 뒤집어씌우기도 하는 이러한 분별은 버려야 하고, 아무리 죽인다 하는 걸 안다 하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나를 천번 만 번 죽인다 한들 내 마음이야 죽일 수 있겠는가. 천번 만번 노예를 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움직여 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체가 없는 마음이,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천지를 탐험해도 손색이 없는 여러분의 마음이 갖춰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복하면 부처님께서 “이 도리를 알면 삼십이상이 구족하고 삼십이승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과거로부터 현실로 나오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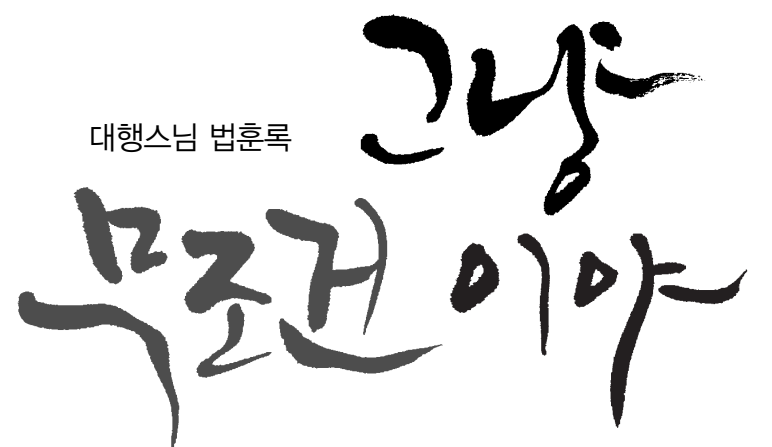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삼